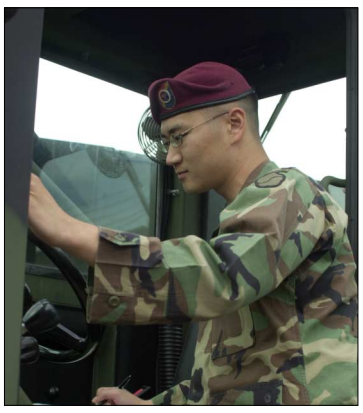
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11월 두 번째 28권 20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Veterans Day의 의미
2004년도 입영예정 카투사 선발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4공수병참파견대



6면 자유 공간
한진이와조던의 한국여행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한지민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

카투사 신문 김택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장병들이 힘을 모아 줄을 당기는 모습. 이들은 이번 줄다리기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지난 11월 7일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위치한 컬리어 필드 하우스와 롬바르도 필드에서는 한미연합사 창설 제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 날의 행사는 한/미 양국의 군인들을 위한 문화소개마당과 체육대회로 이루어졌다. 문화소개마당에는 한, 미 양국의 역사관을 비롯해서 연합사 역사관, 한복을 소개하는 한국의 전통의상 소개관, 한국의 맛인 김치 제작과정 소개관, 미국의 파이 제작과정 소개관이 마련되었고 이에 더하여 널뛰기를 할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과 미 8군 군악대의 공연도 있었다. 체육대회에서는 연합사 각 참모부들이 마라톤, 배구, 농구, 축구와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경쟁하였다. 또한,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초청된 국방부 군악대와 염광여고 고적대의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한 연합사 인사참모부 계획과 소속의 Harry Young 중령은 "연합사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한 행사를 기회로,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말하였다.

탱고경비중대 서지원 병장은 "중대 전체가 중대 행사 성격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것에 놀랐다"며 "25주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가 많은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의거하여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한미연합부대의 기원은 한국전쟁과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인하며, 1977년 주한미군 일부의 철수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한국과 미국의 상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양국의 군사력 운용 체계와 군사작전목표를 명확히 한 바 있다. ■

일병 김택현

카투사 신문 장승모

미 국방장관 방문 Donald Rumsfeld 미국 국방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이 17일 오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Rumsfeld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을 포함,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참전용사들 을 기리며 - Veterans Day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향군인의 날'이라고 하여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매년 11월 11일을 재향군인의 날이라는 의미의 'Vetetans Day'로 지정하여, 이 날 미 전국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Robert Brem 소령에 의하면, 재향군인의 날이 주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날이니 만큼, 군대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 있어서 이 날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재향군인의 날이 되면 미국과 또 세계평화를 위해 싸운 수많은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많은 미군들은 한반도 내 남북 갈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 곳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은 원래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Veterans Day가 아닌 Armistice Day (휴전의 날)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두 세계 대전에 참전한 모든 군인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날을 Veterans Day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두 세계 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등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들의 명예를 기리는 날이 되었다.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있는 주요 행사로는 워싱턴에 위치한 알링턴 무명 용사의 묘지에서 거행되는 헌화 행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이 날에는 미 전국 각지에서 재향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며 성조기도 전국 곳곳에 계양된다. 그리고 올해에는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맨해튼에서 한국전 참전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 퍼레이드에는 참전 미군들과 함께 한국전쟁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소속 한인 200여 명도 참가하였다. ■

상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김택현

웃으며 헌혈 한국군지원단본부 정작과 김원화 일병이 5일 용산지역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행사에 참여, 혈액을 기증하고 있다.

2004 입영예정 카투사선발

2004년 전역할 카투사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연합전투력 향상에 힘쓸 2400여명의 예비 카투사들이 선발되었다.

병무청은 4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내년 입영할 카투사 선발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mma.go.kr)를 통해 최초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사 기자, 국방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선발과정을 지켜보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이날 선발과정은 참석자들에게 선발절차 설명, 난수 공개추첨, 선발자 결정, 입영일자 결정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선발 후에는 선발된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합격사실과 입영일자가 직접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등,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이뤄지기도 했다.

합격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생년월일에 따라 차례대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6주 기초 훈련을 마치고 카투사교육대(KTA)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자대배치를 받아 각자의 부대에서 근무할 것이다.

이번 카투사 선발에는 총 6500여명이 지원하여, 지난해의 1.9대 1에 비해 높아진 약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상병 강병삼

캠프험프리스의우정콘서트

10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프리덤 필드에서는 한국의 연예인들이 이곳의 병사들과 군무원, 그 가족들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물이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날 공연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양국 병사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10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손학규 지사는 캠프 험프리스가 선정된 것에 대해 그것이 "한국 육군, 공군 병사들이 미군들과 조화를 이루며 근무하는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Steve Davis/ Area III PAO

바이올린 연주를 즐기는 카투사들

Steve Davis/ Area III PAO

제3지역 본부중대 이현석 일병이 신수지씨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 7통신관제단-미 본토를 제외하고 가장 항공기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단장 김용혁 대령은 공연에 도움을 주었다.

김선기 평택시장도 다른 양국의 주요 인사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Len Smith씨는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다"며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실제로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3시간 반의 행사동안 관중들은 공연을 즐기고, 응원하고, 따라 불렀고, 몇몇 병사들은 장기자랑을 하기도 했다. ■

Steve Davis/ Area III PAO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1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angbys@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강병삼
기자
상병 장승모
일병 김택현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CPT Mary J. Constantino
Editor
CPL Kang, Byung Sam
Staff Writers
CPL Jang, Seung Mo
PFC Kim, Taek Hyun
Special Assistant
Mr. In, Pu 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angbys@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angbys@usfk.korea.army.mil

■군상식

MLRS

MLRS는 다용도 발사 로켓 시스템(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의 약자로써 무한궤도 차량위에 다연장 로켓발사대가 탑재된 형태를 띄고 있으며 Lockheed Martin Vought Systems에 의해서 생산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미육군을 비롯하여 바레인,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등 14개국에서 배치하였거나 배치 대기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제공사진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MLRS

MLRS는 높은 기동성을 가진 자동화 시스템으로 M270 무장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MLRS는 地對地 로켓과 에이테킴즈(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를 발사할 수 있다. 이 차량에 탑승하는 3명의 승무원-조종수, 사수, 분대장 - 은 캡밖으로 나오지않고, 60초이내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MLRS발사장비는 12발의 地對地 로켓이 장전된 M270 발사대, 2개의 6열 로켓발사관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는 변형된 브래들리 장갑차 섀시에 탑재되며, 자동화 자체 적재및 자체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과 발사작업을 통합시킨 사격관제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다. MLRS 발사대는 승무원이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장갑으로 보호되는 차체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게 해주는 네비게이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MLRS는 장전된 로켓을 개별적으로 혹은 단 두번에 12발을 발사할 수도 있다. 사격관제 컴퓨터는 발사간에 재조준작업을 실시하므로 모든 사격모드에서 정확도가 유지된다. MLRS 발사대는 주야간, 전천후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선진국 5개국이 합작하여 제작한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화포로 우리 군은 최초 1999년에 도입하여 야전에 실천 배치하였다. 특성은 300km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다량의 탄약을 집중할 수 있으며, 걸프전시 미군이 운용하여 이라크에 심대한 타격을 끼쳤던 바, 하늘에서 철비가 내린다 하여 "Steel Rain"이라고도 하였다. 모든 체계가 자동으로 수행되고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재되어 기동력과 방호력이 우수한 최고의 생존력을 갖춘 장비이다.

MLRS의 목적은 적 로켓포, 防空부대, 트럭, 경장갑차, 개별운송수단등의 격파를 위해서 운용된다. MLRS는 모든 육군 기동수단(트레일러, 기차등)에 의하여 작전지역에 전개될수 있다.

MLRS는 빠르게 작전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5 갤럭시 수송기나 기차에 의해 운송될 수 있다. MLRS는 뛰어난 야지 주파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도로상에서의 최대 속도는 64km이다.

MLRS의 기본 전술 로켓 탄두는 644 M77 탄두로 중간고도에서 목표물 위에서 분산된다. 二重목적 탄두는 자유낙하탄과 리본식의 지연낙하 타입 두 가지로 준비된다. 각 MLRS 발사대는 거의 8000개의 산탄을 적어도 60초내에 32km떨어진 곳까지 운송(발사)할 수 있다.

MLRS는 또한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에이태킴즈는 현재 블록-Ⅰ과 블록-ⅠA 두가지 버젼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버젼이 개발중에 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기간 중 실전에서 사용된 블록Ⅰ은 미사일 탄두내에 950개의 야구공 크기의 M74 보조포탄을 적재하여 165km이상의 지점까지 발사할수 있다. 블록-ⅠA는 보조포탄의 적재수를 줄이고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해서 사정거리가 300km가 넘는다.

다기능 임무 시퀀스는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되거나 저장될 수 있다.M270AI 형태까지 업그레이드된 MLRS 발사대는 개선된 사격관제 시스템(IFCS:Improved Fire Control Systems)과 개선된 발사기계 시스템(ILMS:Improved Launcher Mechanical Systems)을 탑재할 예정이다. M270A1 발사대는 2000년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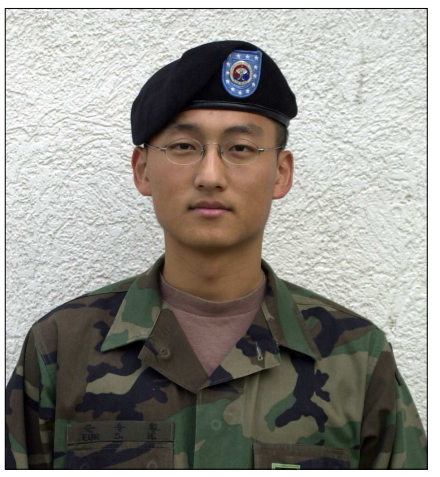
장륜 C/CAB을 사용하는 HIMARS

카투사들의 한마디

첫눈이 오면 기억나는...

4공수병참파견대
일병 김근태

첫눈이 오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한민족의 따뜻한 벗, 소주... 고등학교 때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처음 만났을 때가 선명히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많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었지요. 비록 지금은 맥주, 막걸리, 양주 등과도 함께 하지만 처음 그 만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첫눈이 올 때가 다가오는데 오늘도 따뜻한 소주 한잔이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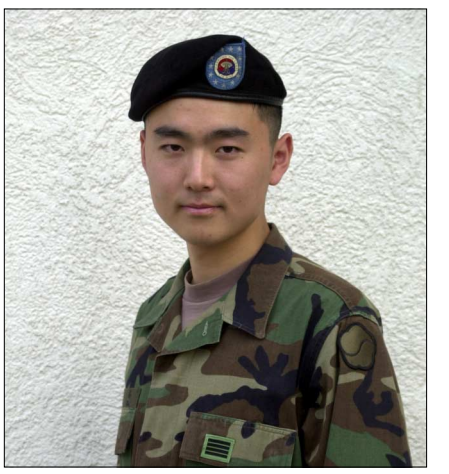


4공수병참파견대
이병 은승환

작년 어느 겨울날, 전 저의 여자친구와 함께 명동성당에 갔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를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남자친구가 내년에 군대 가는데 아프지 말고 잘 지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뜻깊은 첫눈이자 하루였습니다.

4공수병참파견대
상병 이춘복

작년 겨울에 부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원래 부산에서는 눈을 구경하기 힘든 곳인데 눈이 많이 내려 마치 저의 군생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오는 날에 축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눈싸움도 했던 것이 군생활에서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대한 사람들하고의 추억도 만들어서 첫눈이 오면 부산의 눈오는 날이 생각납니다.



4공수병참파견대
병장 위승복

대학교를 다닐 적,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첫눈이 왔었습니다. 그것도 함박눈..도저히 도서관에 있을 수 없어서 친구를 불러 무작정 뛰쳐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 먹었던 삼겹살과 그 친구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제가 한창 매달리던 여자친구도 불러서 크리스마스와 어울리지 않게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4공수병참파견대

4th Quartermaster Detachment

부산에 있는 부대들을 취재하기 위해 캠프 하야리아에 있는 여러 부대들을 물색하던 중, 가장 먼저 기자의 관심을 끈 부대는 20지원단 예하의 4공수병참파견대였다. 생소한 부대의 이름과 자주색 베레를 쓴 부대원들에 대한 호기심에 기자는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4공수병참파견대로의 부대 탐방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산으로 출장을 온 지 사흘이 되는 날 아침,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4공수병참파견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4공수병참파견대의 역사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공수병참파견대는 1943년 928공수병참 석유생산물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어, 다음해 928공수병참 병력파견대로 개칭된다. 1946년 비활성화된 이 부대는 다시 3년 후 4공수병참 석유생산물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되고, 1955년에는 4공수병참파견대로 개칭된다. 이후 4공수병참파견대는 몇 번의 비활성화와 재가동을 반복했고, 1974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이후, 4공수병참파견대는 부산으로 기지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4공수병참파견대는 재보급물자를 공중 투하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부대로서, 단 하루 동안 일개 대대의 병력이나 50여톤의 물량을 공수할 수 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UN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공급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공중 투하를 대비, 50에서 100여 톤 가량의 보급물자를 항시 준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 하야리야 부대 방어훈련 지휘 및 수행, 비전투원 후송 작전 수행을 맡고 있고, 이 외에도 공수훈련이 이루어지는 김해 비행장에서 이착륙 통제작전을 지휘하는 임무 또한 수행한다.

4공수병참파견대는 총 3개의 소대-본부소대, 1소대, 2소대-로 구성되며 카투사들은 각 소대에서 골고루 활약하고 있다. 각각의 소대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본부소대는 인사과, 전투지원처(Support Operations Division), 작전처(Security Plans & Operations), 법률 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캠프 하야리아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투지원처의 경우, 훈련 등의 목적으로 부산을 통해 한반도에 오는 미군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한다. 작전처는 부대방어훈련이나 비전투 요원 후송 작전을 계획하는 등 부대 전체 보안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며 캠프 하야리아에 위치한 다른 부대들의 훈련 스케줄을 계획하고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미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법률 사무소는, 미군과 이들 가족들의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출산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일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부산과 대구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하는데, 주로 미군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는 이 곳 부산보다는 대구에서 업무를 더 많이 한다"는 법률 사무소의 김근태 일병은 "부대 밖에서 미군들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대구에 있는 형법 사무실에서 미군 법무관을 보조해 통역을 하는 것이 주 업무"라며 법률 사무소에서 카투사가 맡은 역할을 말했다.

1소대와 2소대는 본부소대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데, 1소대의 경우 훈련이 잦은 2소대에 물자를 보급해주는 등 2소대의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그리고 2소대는 리깅(rigging) 소대라고도 불리는데 리깅이란 공중 투하될 물자가 착지할 때 충격을 받아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일을 말한다. 소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소대의 주요 임무는 공중 투하되는 장비와 물자들을 포장하는 일과 공수된 물자들과 함께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착륙하는 일을 한다. 2소대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수송기나 헬기를 타고 김해에 도착, 공수훈련을 받는다. 또한 이 외에도 2소대의 부대원들은 분기별로 3박4일의 일정으로 공수훈련을 나간다. 그러나 소대의 카투사들은 현실적으로 공중강습학교에 갈 여건이 되지 않아 공수되는 물자들과 함께 공중강습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소대의 김재민 상병에 의하면 카투사들은 공중강습훈련장에서 주로 수송기나 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미군들이 착륙지점이 아닌 곳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들을 구조하는 일이 맡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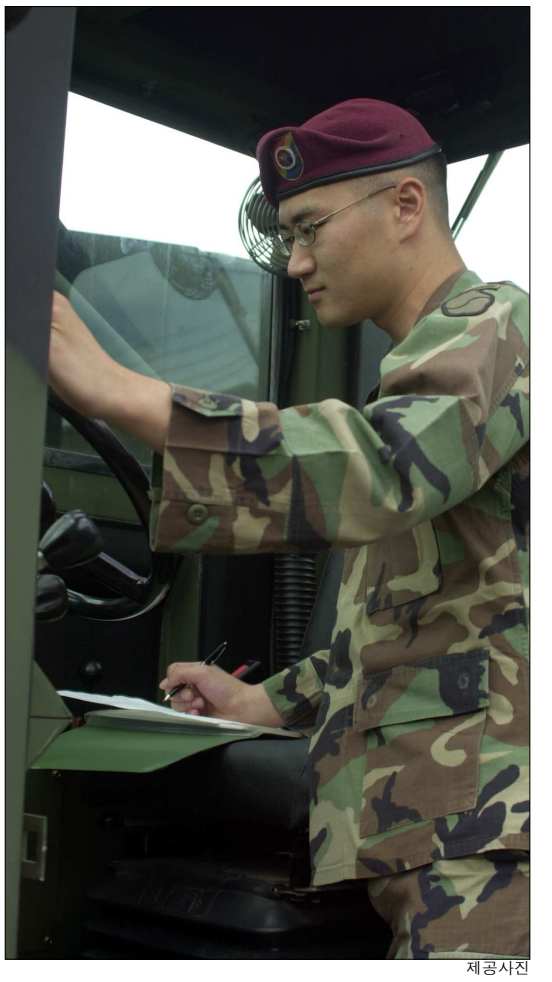
"공중강습을 하다가 많은 부대원들이 착륙지점이 아닌, 낙동강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조반을 편성하는데, 훈련에 참가한 카투사들은 대부분 구조반의 일원으로 활약합니다. 구조반은 보트를 타고 강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지에서 풍향을 체크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 역시 카투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4공수병참파견대 부대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PT를 비롯한 운동을 평상시에 수시로 즐긴다는 것이다.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중대원들이 모두 모여 PT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에는 근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중대 달리기라고 하여 4마일 가량을 뛴다고 한다. 또한 카투사와 미군 모두 축구를 매우 즐기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면 부대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부대의 카투사들끼리 모여 축구를 즐긴다. 본부소대 전투지원처 소속 김훤 이병은 "화요일 업무가 끝나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지원대장님과 부대의 카투사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축구를 하며 전우애를 다진다"고 말해 부대 안에서 축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까닭에 4공수병참파견대 카투사들의 PT 평균점수는 270점을 상회한다고 하며 이는 부대의 미군 PT 평균점수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라고 한다.

4공수병참파견대의 카투사와 미군들은 업무 때 외에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만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카투사 신문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제공사진

있다. 금요일 오후 부대원들이 모여 파티를 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공식적인 파티가 아니더라도 부대 안에서 개인적으로 카투사와 미군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자주 이루어진다. 카투사가 제대를 하면 미군이 전역 파티를 열어주고, 부산에 거주하는 카투사들에 한하여 미군들을 자가로 초청하는 경우도 빈번할 정도로 부대 내 카투사와 미군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한다.

2소대의 Stewart Young 중사는 부대의 카투사가 갖는 역할에 대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미군들은 부대에서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한국의 문화와 특성을 배운다. 이들이 없으면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카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4공수병참파견대의 미군들은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데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부대 밖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과는 달리 부대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카투사들에게 영어를 교육하는 본부소대의 Davona Kirkwood-Asbury 하사는 매주 화요일 영어교육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카투사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들은 항상 준비를 많이 해서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질문도 많이 하고 의욕이 넘칩니다. 제가 가르치는 카투사들은 모두 영리해서 쉽게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매우 수월합니다."

4공수병참파견대 선임병장 위승복 병장에 의하면, 부대가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대의 카투사들은 여가시간에 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고 한다.

"부산에는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 같이 전국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세계적인 항구 도시이다 보니 영화제나 모터쇼와 같은 각종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이외에도 부대 근처에 시립 도서관이 있어 많은 카투사들이 여가시간에 도서관을 찾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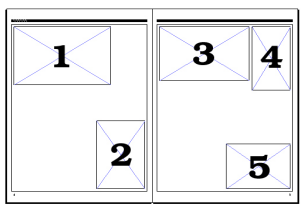
4공수병참파견대의 카투사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있다. 본부소대 법률사무소의 김근태 일병은 "군생활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부대에서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는 자신도 모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전입와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여 큰 어려움이 없다"는 1소대 모터풀 소속 곽노협 상병은 "1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미군들은 일을 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이것이 미군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4공수병참파견대를 포함, 20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지원대장 배홍모 대위는 전국의 카투사들에게 더 나은 군생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카투사 복무신조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카투사는 한국군과 미군의 교량을 이어주는 군사외교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부대에서 미측이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카투사들이 군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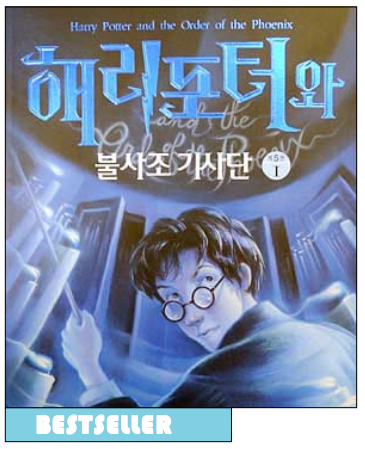
부산에서의 부대 탐방은 이제까지의 부대 탐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바다에 인접한 한반도의 남쪽이라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생긴 이미지일진 몰라도, 기자는 4공수병참파견대를 취재하면서 받게 되는 이국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국에 걸쳐 카투사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높은 기상을 전역하는 그 날까지, 아니 사회에 나가서도 빛낼 수 있는 멋진 카투사가 될 수 있길... ■

상병 장승모



1. 중대 부대방어훈련을 앞두고 중대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Stewart Young 중사
2. 수송기에서 공중투하되는 보급물품
3. 본부소대의 Davona Kirkwood-Ashbury 하사가 4공수병참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모습
4. 1소대 모터풀 소속 곽노협 상병이 지게차(Atlas)의 마일리지를 체크하고 있다
5. 법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근태 일병이 고객에게 법적 조언을 주고 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BESTSELLER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

조앤 K 롤링 / 문학수첩

덤블도어 교수는 4편의 끝에서 호그와트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모두 어둠과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편은 덤블도어가 경고한 바로 그 세계로 곧장 뛰어든다. 5편에서는 어린이가 아닌 15세에 접어든 해리포터를 만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과 자각에 따른 분노, 볼드모트 등 반대 세력들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의 첫번째 로맨스가 이야기의 재미를 더한다.

WEBSITE

Soccerer

www.soccerer.com

월드컵 4강신화의 단꿈에만 젖어 있기엔 지난 아시안컵에서 약체 베트남과 오만에게 당한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축구사랑 나라사랑'을 외치는 축구 팬들은 누구보다도 아쉬웠겠지만 변치않고 보내는 애정과 냉철한 비판이 우리 축구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끈임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축구팬이 되길...

■ 카투사 기고문

한진이와 조던의 한국여행기

1. 전쟁과 평화의 긴장상태 : 혼돈의 세기

- 전쟁기념관(6.25휴전과 한미동맹 50주년, 안중근 X-file 전)

2003년은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6.25전쟁 휴전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그런 한 해인만큼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주요 전시관에서는 이에 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하여 그 의미와 역사를 다시한번 되새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3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 이 긴 여행이야기의 출발도 2003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이 중요한 이슈로 시작하려 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매우 혼란스럽다. 아니 실은 그 영토를 벗어난 주변국들, 나아가 세계까지 연관되어 있어 우리는 도무지 우리 미래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 끊임없는 경제 성장과 군사력이 가져오는 상관관계 속의 중국, 또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의 일본과 러시아와의 민감한 외교적 문제 등…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당하는 주한미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카투사들의 상황 또한 그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못하다.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을 좀 돌려보자. 나라의 국방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나 그 혼란의 중심인 한반도에서 미군이라는 타자들과 함께 2년여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르게 말하자면 문화상의 차이, 상호전투력 그리고 군사 외교적 관계라는 가치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중한 생각과 뚜렷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한 논의들을 나 혼자서가 아닌 둘이서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나와 조던은 여행길에 올랐다. 그래서 시작한 곳도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본부가 함께 위치한 현장인 용산, 특히 그 안의 전쟁기념관이다. 그곳에 들어서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갈등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된다. 혼돈의 세기가 가져왔던 가치관의 혼란과 갖가지 충돌들로 인해 일어난 역사들이 그곳에 조용히, 그렇지만 그 당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바로 '형제의 상'이다. 조던은 나에게 물었다. 저 두 군인이 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지를. 난 우리 민족비극의 상징이라고 말해준 뒤, 6.25 전쟁 당시 형은 국군으로 아우는 공산군으로 싸우다가 우연히 만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념상이라고 대답해주었다. 정말 그렇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맞대고 싸운 그 전쟁은 5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여전히 남아 아픈 기억을 주고 있다. 조던도 형제의 상을 보면서 어느정도 그 아픔을 느껴보려 했던 것 같았다. 전시실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한국을 위해 목숨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다란 공간이 있다. 그 청동판에 새겨진 한자 한자의 이름 위에 어떤 이들은 꽃다발로 또 어떤이들은 목례와 묵념으로 거룩한 업적을 기리고 있었다. 우리들도 물론 그곳을 조용히 걸으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상병 이한진

이 조용히 잠든 영혼들이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떠났는가.

며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했다. 그 분들의 크신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념관 안은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방산장비실 그리고 대형장비실이 바로 그 전시실들이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호국추모실'이다. 그곳은 민족과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국방의 최일선에서 호국 영령으로 신화한 애국 선열들의 위업과 그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전당이다. 은은한 조명과 추모를 위해 마련된 조형물을 보며 조던과 나는 국가를 넘어선 그 숭고한 의지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 '전쟁역사실'로 가게 된다. 선사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및 일제침략기의 각종 대외항쟁 자료와 무기, 장비 및 복식제도가 잘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는 조던에게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 물론 그 곳에 전시된 실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곽, 거북선, 전차 등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수월하게 해주었다.

계단을 통해 층 하나를 오르면 '6.25 전쟁실'이 나온다. 올해가 휴전 50주년이라는 의미 때문인지 이 전시공간은 특히나 의미가 남달랐다. 6.25 전쟁의 발발 배경에서 부터 북한의 남침, 유엔군의 참전, 중공군의 개입, 전선교착, 휴전의 과정까지 6.25 전쟁 전반에 관한 실증자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나와 조던은 관람 중 인천상륙작전 코너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유엔군과 한국군 공동으로 수행된 그 작전은 전세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조던과 나는 영상자료들을 보며 그 때의 치열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이러한 가슴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국군발전실'은 바로 이러한 국군의 창설과정에서부터 현재의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하기 까지의 발전과정이 잘 전시되어있다. 지금 나와 65만의 전우들이 복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조던 또한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군은 우리나라만을 방어하는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해외로 나가 월남전을 비롯한 걸프전, 소말리아, 이라크 등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국군의 멋진 활동상 및 성과 등이 전시되어 있는 '해외파병실'에서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방산장비실'과 '대형장비실'에는 각각 우리의 자주국방 방위산업의 추진 결과로 개발된 군사장비들과 6.25전쟁 당시의 사용된 육,해,공군의 주요 대형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실제크기의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미사일 등을 보고 만져보니 실전감이 한결 더했다.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X-file 안중근전'을 잠시 관람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애국지사로만 알려져 왔지만, 안의사는 의병대를 이끈 의병대장이자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위대한 사상가이며 평화주의자셨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생애를 깊이있게 조명한 첫 기획전이라고 했다. 이곳에서 조던과 나는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도 초창기 유럽의 식민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하여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에 대한 미국민들에 대한 애정은 아주 각별하다고 조던은 말해주었다. 두분이 처했던 상황도 다소 틀리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혼돈의 세기에 품었던 위대한 뜻은 어딘가 통하는 곳이 있다고 보여졌다.

조던과 나는 각각 미국사람 그리고 한국사람으로 피부색과 먹는 음식,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르다. 지금 우리들이 대표하는 양국간의 문화와 역사현실; 이 다름이 가져오는 차이 만큼 우리가 그들을,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운명적 동반자로서 카투사와 미군은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공동의 노력으로 찾아나가고 있다. 혼돈의 세기는 그렇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상병 이한진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25 장

Winglish.com

* 영화가 지루했어.

어떤 영화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지만 어떤 영화는 정말 '지루'합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위 주제를 영어로는?

"The movie was slow." 라고 하죠.

주제연구)

이번 주제에 쓰인 slow는 '동작이 느리다'뿐만 아니라, 시간을 질질 끄는 '지루한'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B: That was slow.

A: What do you mean?

B: It was really boring.

번역)

A: 어젯밤 영화 어땠어?

B: 지루했어(재미 없었어).

A: 무슨 말이야?

B: 정말 따분했다고.

*아시다시피 그 사람 영화광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유난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화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런 표현을 연습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You know he is a real movie buff." 라고 하죠.

주제연구)

buff는 미국 영어의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헌신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구광도 baseball buff 라고 하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구합니다.

A: Where is John?

B: He went to see a movie.

A: Again? It's the third time this week.

B: You know he is a real movie buff.

번역)

A: 존 어디 있어요?

B: 영화 보러 갔어요.

A: 또요?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잖아요.

B: 아시다시피 그 사람 정말 영화광이잖아요.

*스미스씨, 언제쯤 찾아 뵐 수 있을까요?

이 topic을 영어로는?

"When shall I visit you, Mr. Smith?"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W: When shall I visit you, Mr. Smith?

M: Anytime next week will be fine with me.

W: What about on next Tuesday?

M: That's okay.

번역)

W: 스미스씨, 언제 뵐 수 있을까요?

M: 다음 주엔 언제라도 전 좋아요.

W: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M: 좋습니다.

*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의 topic을 영어로는?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a convenient time for you?"

주제연구)

convenient는 '편리한', '간편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convenience store 라고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M: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a convenient time for you?

W: Tomorrow afternoon will be alright with me.

M: Great, can I see you around 4 then?

W: Excellent!

번역)

M: 언제가 편하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W: 전 내일 오후가 편합니다.

M: 좋습니다, 그럼 4시경에 뵐까요?

W: 좋습니다!

*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schedule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이번엔 그에 대한 표현을 알아 보기로 합니다.

위의 topic을 영어로는?

"Are you free tomorrow afternoon?"

주제연구)

free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m free는 "난 자유로워" 즉 "시간이 생기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볼까요?

M: Amy, are you free tomorrow afternoon?

W: I am not sure yet, why?

M: I'd like to discuss some math questions with you.

W: Okay, let's meet around three at the school canteen.

번역)

M: Amy, 내일 오후에 시간 좀 있어?

W: 확실하지는 않지만, 왜?

M: 수학 문제에 대해 너하고 논의 좀 하고 싶어.

W: 알았어, 학교 매점에서 3시쯤에 보자.

* 그런 거라면 지금 토의합시다.

생활영어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할 때 "그런 경우라면" 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에 대한 표현 연구입니다.

이 주제를 영어로는?

In that case, let's discuss it now. 라고 합니다.

주제연구)

case는 우리말로 '맥주 등을 담는 상자'이지만 다른 뜻으로는 '경우' '사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사건'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W: Al,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to talk with you?

M: After work, I think. Can I ask you why?

W: Nothing much actually, I just want to talk with you about our summer vacation.

M: In that case, let's discuss i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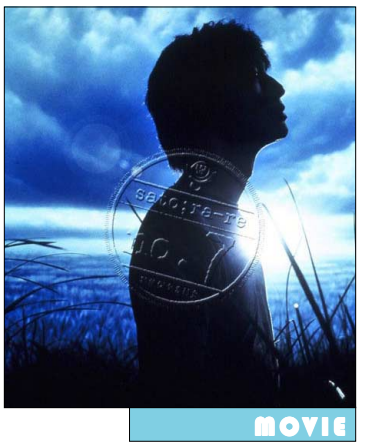
번역)

W: 앨, 당신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편한 시간이 언젠가요?

M: 퇴근 후가 괜찮은데, 무슨 일이에요?

W: 별로 특별한 건 아니구요, 우리 여름 휴가에 관해서 의논 좀 하려고요.

M: 그런 거라면, 지금 합시다.



사토라레

감독: 모토히로 카츠유키

주연: 안도 마사노부

사토미 켄이치는 3살때 겪은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그 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있는 청년 외과 의사이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그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마음속을 들켜버리고 마는 '사토라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그의 마음속 솔직한 생각들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긴장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비

2.정말사랑했을까/브라운아이드소울
3.차마/성시경
4.I Swear/S
5.여전히 입술을 깨물고/이수영
6.애송이/렉시
7.다시 만난 날/휘성
8.체념/빅마마
9.자꾸만/이기찬
10.Double/보아
11.사랑하기 때문에/WAX
12.오리날다/Cherry Filter
13.습관/Fly to the Sky

카투사 신병처럼 신선하고 의욕적인 그녀

한지민

FRESH AND HIGHLY MOTIVATED LIKE A NEW KATUSA SOLDIER

미8군 공보실 윤종필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는 11월의 어느 토요일, '올인'으로 얼굴을 알리고 '좋은 사람'으로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된 연기자 한지민씨를 청담동 어느 미용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녀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는 그런 연기자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1982년 11월 5일 생이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매니저 실장님의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실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추천으로 실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광고 촬영을 조금씩 하다가 대학교 올라와서 '올인'을 처음으로 찍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하게 됐어요. 처음 데뷔는 모 스포츠 음료 광고로 하게 되었죠.

-최근근황

'좋은 사람'이 2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학교를 많이 빠져서 중간고사 기간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미루어두었던 광고 촬영과 잡지 촬영하면서 다음 작품 고르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CF

가장 최근에 찍은 (아직 방영은 안 되었지만) 모 이동통신사 광고 중에 눈물 흘리면서 찍은 광고 2편이 있어요. 그 중에 수중 촬영씬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못 뜨겠는데도 자꾸 눈을 뜨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한 것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그때 촬영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나는 미팅이나 소개팅 같은 자리들은 꺼려지고, 만나면서 좋은 느낌이 점점 생기는 편인데,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여자라 잘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간다고 하면 다들 슬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연예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드라마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지만 힘들었던 기억만 많아요. 제가 드라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해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랑 섞여 가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동통신사 광고 촬영 때 생긴 일인데, 상대역 남자 분이 저를 물에서 건져 들어올려야 하는데 아주 마르셨어요. 그날따라 제가 매우 많이 먹어서, 일어나는데 휘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했던 기억이...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웃음)

카투사 신문 김택현

-꼭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좋은 사람'에서는 천상 여자 같은 역이었잖아요, 공효진씨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역을 하고 싶고, 푼수인데 밉지 않은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겁도 많은 편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죠.

-닮고 싶은 연예인

항상 보면서 "참 저 언니(?) 예쁘다" 했던...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풍기는 이미지가 고급스러워서 좋아하는 분인데, '장금이 언니' 좋아해요. 이영애씨 그 분이 연기하시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 분만이 갖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작품을 하면서 뵌 송채환,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연기가 몸에 배어 연기를 즐겁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장수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된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한 이유

저는 제가 정말로 연예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지금도 연예인이라는 말을 되게 낯설어 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학부에 아동학과랑 사회사업학과가 있어서 원래 아동학과에 꿈을 품고 갔는데, 사회사업 쪽도 생각이 있었고, 앞으로 꼭 필요한 일이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쪽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사업에 아동복지도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사회사업을 선택했어요. 연기자가 되었더라도 사회사업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사회사업 일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

지금 당장은 학교생활에 충실해야겠고,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연기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세련됨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련되어 보이고 고급스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군 생활 하셨으면, 그리고 군복무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

일병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프로필
생년월일: 1982년 11월 5일
키: 162cm 몸무게: 45kg
취미: 수집
학교: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2학년